

第215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國會事務處

2000年9月1日(金) 午後 2時 開式

제215회국회(정기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6분 개식)

○議事局長 朱永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李萬燮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崔鍾泳 대법원장,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야의원 여러분!

오늘은 21세기 새 정치의 펼쳐갈 소임을 부여받은 제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있는 본인은 국민 앞에 그 어느 때보다 죄송함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천년, 새 국회인 제16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지난 6월 5일 이 사람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번 국회야말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 기필코 새 헌정사를 쓰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기일에 개원이 이루어지고 순항을 하던 제16대 국회가 또다시 여야간의 격돌과 대치 끝에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번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조차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께 깊은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국민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야의원 여러분!

제16대 국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의감과 애국심에 불타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일하는 생산적 국회상'을 보여주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쟁과 극한 대립으로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회가 사생결단식 '당론정치'와 '정당이기주의'의 불모가 되어 민생을 외면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단 말입니까?

세계정세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남북관계는 급진전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언제까지 여야 싸움만 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외교와 남북문

제에 있어서도 마땅히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의롭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진정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 국회가 더 이상 편협하고 무책임한 소수강경파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 의사당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헌정사를 통해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강경파가 주도하는 경우, 끝내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 앞에 이를 실천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겉으로 말은 없으나 정치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가 가슴을 열고 정기국회를 정상화시켜 산적한 국정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화급한 민생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를 본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중 고쳐야 할 부분들을 심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국민들은 다시 우리 국회에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야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사람은 양심과 명예를 걸고 이 국회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의장의 양심과 의지를 믿고 바로 이 국회를 기싸움과 당리당락이 없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일하고 땀 흘리는 숭고한 봉사자의 역할로 우

리 다 함께 다시 돌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의원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불신과 대립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7천만 민족의 눈시울을 적신 8·15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 진정 통일이 얼마나 간절한 민족적 과제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7월 17일 제52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북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어제 UN 본부에서 열렸던 IPU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도 남북국회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아침 막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과 리펑(李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쉘레즈노프 러시아 하원의장, 와타누키 타미스케(綿貫民輔) 일본 중의원 의장 그리고 비올란테 이탈리아 하원의장 등 11개국 국회의장들과 개별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들 국회의장에게 저는 전향적인 한반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남북간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면서 계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국민과 여야의원 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양측의 입법부 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문제를 논의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함께 세계주의와 인류공영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의장들도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결같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국민총의를 모아 남북화해와 교류의 시대를 앞장서 개척해 나가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여야간에 의견일치를 본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하여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 시정, 면회소 설치, 남북국회회담, 경험의 제도적 뒷받침과 통일에 대비한 법적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회가 통일정책에 대한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랜 정치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있는 데 대해 죄송한 마음 이루 헤아릴 길 없습니다만 그러나 국회를 대표하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회를 저버리지 말고 인내와 애정을 갖고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는 결코 기다려 주지 않으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다 함께 되새기면서 우리 내부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남북의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南南의 화합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南南의 화합 없이 어떻게 민족의 화합을 이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국민의 총의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바로 우리 국회가 민족 응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국민들은 진정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으며, 小我보다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모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정기국회를 정상화시켜 나아갑시다.

여야의원 여러분들의 국민을 향한 뜨거운 정열과 애국심이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事局長 朱永鎮 이상으로 제215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1분 폐식)

○參席議員(257人)

姜 三 載	姜 成 求	姜 淑 子	姜 申 星 一
姜 雲 太	姜 仁 燮	姜 在 涉	姜 昌 成
姜 昌 熙	姜 賢 旭	高 珍 富	高 興 吉
郭 治 榮	權 琪 述	權 五 乙	權 哲 賢
權 泰 望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金 權 泰	金 杞 培	金 淇 春	金 德 圭
金 德 龍	金 德 培	金 東 旭	金 樂 翼
金 滿 堤	金 明 燮	金 武 星	金 文 洙

金 民 錫	金 芳 林	金 富 謙	金 聖 順
金 晟 祚	金 成 鎬	金 榮 龜	金 令 培
金 榮 駟	金 泳 鎭	金 榮 春	金 榮 煥
金 玉 斗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金 雲 龍	金 元 基	金 元 雄	金 允 式
金 貞 淑	金 鍾 泌	金 鍾 河	金 宗 鎬
金 鎭 載	金 燦 于	金 忠 兆	金 台 植
金 泰 鎬	金 泰 弘	金 宅 起	金 鶴 松
金 學 元	金 한 길	金 炯 昨	金 浩 一
金 洪 信	金 弘 一	金 孝 錫	金 希 宣
羅 午 淵	南 景 弼	南 宮 哲	柳 三 男
柳 在 乾	柳 在 珪	柳 興 洙	孟 亨 奎
睦 堯 相	文 喜 相	閔 鳳 基	朴 寬 用
朴 光 泰	朴 權 惠	朴 明 煥	朴 炳 錫
朴 炳 潤	朴 尙 奎	朴 相 千	朴 相 熙
朴 世 煥	朴 是 均	朴 容 琥	朴 源 弘
朴 仁 相	朴 在 旭	朴 鍾 根	朴 宗 雨
朴 鍾 雄	朴 鍾 熙	朴 柱 宣	朴 柱 千
朴 昌 達	朴 憲 基	朴 赫 圭	朴 燻 太
裴 基 善	裴 奇 雲	徐 相 燮	徐 英 勳
徐 廷 和	徐 清 源	설 송 웅	薛 勳
孫 泰 仁	孫 鶴 圭	孫 希 妊	宋 光 浩
宋 錫 贊	宋 永 吉	宋 榮 珍	宋 勳 錫
辛 卿 植	申 溪 輪	辛 基 南	申 榮 國
申 榮 均	申 鉉 泰	沈 奎 燮	沈 揆 喆
沈 載 權	沈 在 哲	安 炅 律	安 大 崙
安 東 善	安 泳 根	安 澤 秀	嚴 虎 聲
吳 世 勳	吳 長 燮	元 裕 哲	元 喆 喜
元 喜 龍	俞 成 根	劉 容 泰	尹 景 湜
尹 斗 煥	尹 汝 雋	尹 榮 卓	尹 鐵 相
李 康 斗	李 康 來	李 揆 澤	李 根 鎭
李 洛 淵	李 萬 燮	李 美 卿	李 方 鎬
李 秉 錫	李 富 榮	李 相 得	李 相 培
李 相 洙	李 祥 羲	李 良 熙	이 연 숙
李 完 九	李 龍 三	李 源 性	李 元 昌
李 源 炯	李 允 盛	李 允 洙	李 仁 基
李 仁 濟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在 禎
李 在 昌	李 正 一	李 鍾 杰	李 柱 榮
李 昌 馥	李 漢 久	李 漢 東	李 海 鳳
李 協	李 浩 雄	李 會 昌	李 訓 平
李 熙 圭	林 仁 培	任 鍾 哲	林 采 正
任 太 熙	張 誠 珉	張 誠 源	張 永 達
張 英 信	張 在 植	張 正 彦	張 泰 玩
全 甲 吉	田 塔 源	田 溶 鶴	全 在 姬
鄭 均 桓	鄭 大 哲	鄭 東 泳	鄭 東 采

鄭夢準 鄭文和 鄭範九 鄭柄國
 丁世均 鄭宇澤 鄭義和 鄭寅鳳
 鄭長善 鄭在文 鄭鎮碩 鄭昌和
 鄭哲基 鄭亨根 趙富英 趙誠俊
 趙舜衡 曹雄奎 趙在煥 曹正茂
 朱鎮盱 千容宅 千正培 崔燉雄
 崔炳國 崔秉烈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崔龍圭 崔在昇 秋美愛
 河舜鳳 韓明淑 韓昇洙 韓和甲
 咸錫宰 咸承熙 許雲那 許泰烈
 玄勝一 洪思德 洪在馨 黃勝敏
 黃祐呂

○來賓參席者

대법원장	崔鍾泳
국무총리	李漢東
감사원장	李種南
재정경제부장관	진님
외교통상부장관	李廷彬
법무부장관	金正吉
국방부장관	趙成台
교육부장관	李敦熙
과학기술부장관	徐廷旭
농림부장관	韓甲洙
산업자원부장관	辛國煥
정보통신부장관	安炳燁
보건복지부장관	崔善政
환경부장관	金明子
해양수산부장관	盧武鉉
기획예산처장관	田允喆
통일부차관	梁榮植
행정자치부차관	金在榮
노동부차관	金相男
건설교통부차관	姜吉夫

○제215회국회(정기회)집회공고

일시	2000년 9월 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
공고자	국회의장대리 부의장 洪思德

(8월29일자)